

오느름 대표 김희경 씨



### “국악선율에 불법 담을터”

“불교음악의 현대화는 언젠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불교 음악인들이 해야 할 당면과제인 것입니다.”

26일 공연을 앞두고 오느름 실내악단과 연습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김희경씨의 말이다. 그는 서양 음악 작곡을 공부했으나 어릴때부터 가슴 속에 쌓여진 우리 가락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 없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는 국악의 선율이 최상인 신념으로 다양한 찬불가를 작곡했다고 말했다. 그가 이번 공연에서 선보일 곡들 중 특별히 주목 받는 것은 바로 ‘전통불가조’다.

“전통불가조는 범패의 바랄채비 소리와 화성, 축원, 그리고 보현(보시)과 열불곡의 운율입니다. 그간 구음으로 전해진 이들 곡들을 정확히 재현했습니다. 박승안스님의 가락을 오선보로 옮긴 것인데 음가의 정확한 보존과 불교음악의 대중화란 측면에서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김씨는 악단을 이끌며 불교음악 작곡에 몰두해 오다가 꼭한번 이런 무대를 갖고 싶었다는 기획사 무메로우노와 인연이 닿아 공연을 하게 됐으며 ‘홀륭한 무대’를 관객에게 선사하겠다고 다짐.

오는 29일 여의도에서 봉행될 불교음악제에서 연합합창단을 지휘하게 될 김씨는 그간 조계사등 많은 사찰 합창단의 지휘를 맡아 왔었다. “이번 연주회를 계기로 불교음악이 보다 다양화되고 전통계승의 방향이 자리매김 될 것 같다”는 김씨는 자신의 음악적 재량이 닿는 한 계속 불교음악에 몰두할 계획이라고.

# 불교음악 새지평 여는 무대 ‘기대’

## 오느름 실내악단 봉축음악제 찬불국악가요·동요등 다수 첫선

### 본사초청 26일 국립극장

우리 국악을 바탕으로 새로 작곡된 찬불가요와 동요 불가조곡들을 선보이는 봉축 음악무대가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열리는 이 음악회는 국립실내악단 오느름(단장 김희경)을 본사(本社)가 초청해 마련한 것. 이날 무대에서는 김희경씨가 새로 작곡한 찬불 가요 ‘홀륭한 겨울’ ‘연꽃피어 오리리’ 등 9곡과 동요

‘육근’을 공연한다. 특히 범패소리중 바랄채비 소리를 재보해 정확한 음가를 메겨 편곡한 ‘전통불가조’ 화성, 축원, 보현도 덕신스님과 준인간문화재단 안숙선 명창에 의해 소개될 예정이다. 이날 소개되는 ‘전통불가조’는 그간 구전에만 의존해 오던 범패의 선율을 오선보로 옮긴 것으로 원형의 음가를 가장 정확히 살려낸 것이어서 불교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날 음악회에서는 승무·법고승(김현숙·국립무용단)과 경복예천 지방과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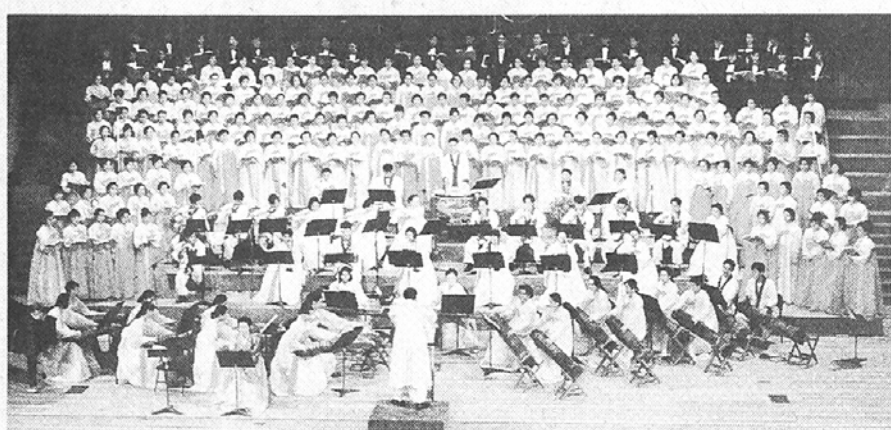
도 고양지방의 들노래(조주선 관소리 명창)도 들을 수 있다. 또 남상복사 중창(8명의 중창)과 찬불가 ‘초파일 송가’ ‘연등’ 등도 공연된다. 이날 공연된 곡들과 김희경씨의 신작곡들은 5월중에 CD로도 제작돼 보급된다.

이번 무대는 새로 창작된 신곡과 기존의 찬불가를 함께 들을 수 있으며 전통 불교음악의 현대적 계승을 가능케 하는 무대란 점에서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공연을 펼칠 국립실내악단 오느름은 91년 7월에 창단, 수차례의

연주회와 세미나를 개최해 온 악단으로 국립국악관현악단과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등 유명 악단의 젊은 악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국악기를 연주하지만 기타나 신디사이저등도 과감히 무대에 올리며 국악과 불교음악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오느름의 특징이다.

한편 이번 공연은 최근 설립된 이벤트 업체 무메로우노가 야심을 가지고 기획해 무대연출등 음악회의 내용적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문의=544-4782) <임연태 기자>



### 한바탕 춤판 ‘자비의 나라로’ 공연

#### 내달 7일, 불국사 대웅전 앞마당

불국사를 무대로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한바탕 춤판이 벌어진다.

불국사(주지 설조)는 다음달 7일 오후 6시30분부터 장장 3시간 30분동안 이어져(서운대)교수의 춤 ‘자비의 나라로’를 공연한다. 대웅전앞과 청운교, 백운교를 무대로 삼아 펼쳐질 이날 공연은 사물과

며 화려하게 연출된다. 이어지는 나가는 마당의 주요 장면은 탐담이, 출연진 전체와 관객이 한시간동안 석가탑과 다보탑 연화교 칠보교를 돌게되는 이 순서에서는 참가대중이 합창으로 ‘석가모니불과 도세도세’를 합창하게 된다.

불국사측은 광복50년을 기리고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해 이 무대를 마련 했다고 밝혔다.

### 관음송으로 통일염원

「광복 50주년 기념 민족통일기원 한마당」에서 백두까지, 전수현안관음송가 공연이 지난 8일 오후7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장엄하게 펼쳐졌다.

“독련송” ‘만생령을 위해 오신님’ 등의 찬불가와 가곡이 관음사님 사찰합창단과 테너 엄정영씨의 노래로 엮어진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지일스님 시에 변규백씨가 곡을 붙인 ‘전수현안관음송가’가 삼보사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삼보사합창단에 의해 공연됐다. 이날 공연에는 4천여명의 불자와 불교음악인들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 신민승·장경호씨 선정 ‘무제’, 주제 작품 전시

한국불교아동문학상 정남영씨, 미술화관 등 두곳서

한국불교아동문학회(이사장 박용열)는 제13회 한국불교아동문학상에 정남영씨와 미술화관과 금산 갤러리에서 동시에 전시한다. 지난 14일 문을 연 정씨의 전시회는 19일과 28일까지 각각 열린다.

정씨는 이번 전시회에 샌드 페이퍼로 갈고 송곳으로 상처를 만든 ‘화면에 물감을 바른 작품들’을 내놓는다.

인터뷰

### “천수천안” 공연 참관 日 선홍사 아스카 스님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며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대형무대를 직접 보게되 기쁩니다. 이같이 감동적인 무대를 반주자와 합창단, 지휘자, 관객이 혼연일체가되어 창출해 내는 것이야말로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잘 보여주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 찬불가 日보다 월등 음악통한 한·일 불교교류 기대 커”

강남에서 열린 ‘천수천안관음송가’를 지켜본 아스카스님(일본 선홍사·불교음악가)의 얘기다. 이날 공연을 보기 위해 노구를 이끌고 한국에 온 스님은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의 불교음악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공연을 관람한 스님은 “한국의 가락으로 관음보살님을 찬탄하는 대형무대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용과 합창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기획도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아스카스님은 찬불가 작곡가로 중요한 활동을 했던 김홍호 선생과의 인연으로 한국 불교음악에 관심을 갖게 됐다. 지금도 김홍호 선생의 제자들로부터 구성된 합창단 목련회와 매우 긴밀한 교류를 가지며 목련회의 일본 공연을 매년 후원해 주고 있다. “목련회를 통해 한국의 찬불가가 일본에 소개되고 있으며 일본내의 사찰 합창단도 한국 찬불가를 즐겨 부른다”고 소개한 스님은 “찬불가 보급을 위해 애쓰는 한국의 음악가들이 존경스럽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태)

### 다채로운 문화 행사로 부처님 오신날 기린다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리는 각종 문화행사가 이달과 다음달까지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 기간중 음악, 연극, 전시행사는 물론 ‘미술의 해’를 맞아 한국불교미술의 현실을 진단하는 세미나도 열리게 된다. 올해 봉축문화행사를 중 일부는 규모면에서 전례없이 크게 기획되거나 일반인을 겨냥한 경우도 있어 봉축분위기를 포교의 기회로 삼으려는 노력도 더해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웅변대회, 백일장, 사생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서울을 비롯한 지방에서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어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할 계획이다. <필>

날짜	행사명	장소 및 시간	주관단체
4/21~5/7	· 아동공예전(1일3회) · 신년송회 · 안동문화행사	목동 청소년회관 조계사 문화관 오후5시 정동 문화체육관 오후3시 제주 남원고교체육관	봉곡위 현대불교문화회 연화플라자·연화사 제주불교법우회
4/25	· 전도 초·중·고 사예백일장 · 제1회 나라사랑 · 꽃길기대회 · 불교미술제(나) (불교미술제준영)	대문사 오전10시 프레스센터 오후2시	정남 대문사 봉곡위
4/25~4/31	· 콘서트 신년환영	대전생원대학교	백연장학회
4/25~5/15	· 전통불교공예전 · 전통불교의식 · 기구 전시회 · 불교음악의 밤	국립극장소극장 오후7시30분 부산민원관 대강당 오후8시 동국대 중강당 오후8시 조계사 대웅전 오후2시	국립극장소극장 부산불교연합회 대한불교대불당 봉곡위

날짜	행사명	장소 및 시간	주관단체
5/1~5/8	· 전통공예 전시회 · 불교꽃무이전	조계사 경내 봉곡사	불교문화연구소 연화꽃이연합회
5/2~5/4	· 대구경북불교합창제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구경북불교합창제
5/3	· 한국불교미술인협회전	공공아트센터	한국불교미술인협회
5/5~5/11	· 삼상사진전시회	삼상사	삼상사
5/6~5/7	· 관소리발명전	도피안사 경내	도피안사
5/8	· 청소년 음악회 · 아동극 ‘단군할아버지’	과림공원 오후7시 동승아트센터 동승홀 오후3,5시 오전11시, 오후2시 동국대 중강당 오후2시	봉곡위 봉곡위 형교연
5/13~5/14	· 청소년 종합예술 경연대회 · 어린이 백일장	목동청소년회관 오후10시	봉곡위
5/14	· 연극 백일장 및 사생대회	부산 발여사 탐정, 시간 미정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5/21	· 불상전	대구문화예술회관 1층	대구 지비의전화
5/22~5/31	· 서울인형제 (국제인형축제)	목동청소년회관 오후2,4시	봉곡위

### 홍문화 박사와 함께 건강을...

### 여시아문 제1회 저자와의 만남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장과 아시아학회의 의정등을 역임한 약학계의 거두 홍문화박사(서울대 명예교수)를 초청, 제1회 저자와의 만남을 개최합니다. 이미 ‘신 동의보감’, ‘약이나 독이냐’, ‘건강하게 사는 지혜’ 등 여러 건강서를 펴내 화제를 모으고 있는 홍문화박사는 성인병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바른 건강법과 식생활의 지혜를 알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가 안내 ◆  
■ 일시·장소: 4월26일(수) 오후3시 녹수청산  
■ 선착순 1백명에 한합니다.  
■ 강연 후 작가 시인회를 갖습니다.  
■ 문의: 737-0695(여시아문) 737-8881(현대불교신문사)  
■ 협찬: 불광출판부  
주최: 책방 여시아문  
현대불교신문사

# 韓國佛教美術大典

우리 민족과 한국미술의 자존심을 이 책으로 살렸다!!

대한민국 제38회 출판문화상에 빛나는 한국불교미술대전은 미국 허버드 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및 일본 경도대학 부설 불교미술 연구소에서 우리문화의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1 佛教彫刻
- 2 佛教繪畫
- 3 佛教建築
- 4 佛教工藝
- 5 現代佛教美術
- 6 世界의 佛教美術
- 7 佛教美術資料集

한국 불교미술 집대성.  
팔만대장경 이래 한국불교문화사 최대의 불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 불교미술  
국문판에 이어 일어판, 영문판도 곧 이어 발간.  
한국출판사상 보기도문 대기획에 최고급 인쇄.

- 8절판(26.5×36cm)의 초대형크기
- 각권 312~376페이지의 울려라 인쇄
- 본문 180g의 스노우화이트지 사용
- 호화양장제본에 날권케이스, 금박 포클로스
- 정가 630,000원(전7권)

현대불교 구독자 사은행사로 선착순 100명에 한하여 전권 630,000원을 490,000원에 현금 및 할인 분할해 드립니다. 법보시용으로 최적입니다.

주문처  
현대불교신문사 사업부  
TEL: (02)737-0695  
FAX: (02)737-0696

공급처  
(주) 한국색채문화사  
TEL: (02) 333-0051  
FAX: (02) 338-7781